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제758호

AUGUST Customer Appreciation Day Aug. 20 ~ Aug. 24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산대의 POS 지원으로 새로운 HIT OR MISS 복권을 홍보하십시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권유하십시오!

고객에게 **OLG 복권 앱** 또는 **OLG.ca**에서
추첨 동영상을
꼭 보라고 상기시켜주십시오

당첨자 업데이트

올해 1월
HIT OR MISS가
출시된 이후

**9명의 당첨자가
12개 중 12개를
맞추어
\$250,0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
**5명의 당첨자가
12개 중 하나도
못 맞추고도
\$250,0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24일
현재 수치임).

OLG 미스터리 쇼핑

OLG는 인증 절차(Validation Procedures) 및 ID 25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매업자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합니다. 미스터리 쇼퍼가 미스터리 쇼핑을 한 후 점수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함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매장이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스터리 쇼퍼가 수집하는 정보는 OLG가 준수 여부 이상의 것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유용합니다:

- 소매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상황의 식별
- 소매업자 지원을 위한 소매업자와의 소통 시스템 조정
- 이러한 소통의 효과 평가

미스터리 쇼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LG는 이를 소매업자를 위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로 여깁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정중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들은 OLG가 의뢰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며, 이들이 알아낸 것은 저희가 교육 및 규정 준수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 사업개발
- ▶ 공급업체 상담
- ▶ 행사관련 사항
-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 사업개발
- ▶ 공급업체 상담
- ▶ 행사관련 사항
-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 리베이트
- ▶ 대외 A/P, A/R
-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 실험뉴스 취재
- ▶ 기사제보
-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 광고 / 편집 디자인
-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Saint Jimmy's Coffee & A Bis Gourmet Sandwiches

8월 고객감사의 날 행사(20일~24일) 현장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며 많은 문의에 상담을 해 주었다.

C O N T E N T S

조합 특감, 고구마 줄거리 캐나... | 04~06

신용카드 결제 사기 유의 | 07

세인트지미 커피사업 계약 조건 개선 | 08

세인트지미 그랜드 오픈ing 이모저모 | 09

카드 수수료 인하 '새발의 피'? | 10~11

공립학교 돕는 편의점 | 12~13
OKBA 주요 행사 (9월 ~ 12월)

유럽 편의점 강국, 폴란드 엿보기 | 14~15

16 | 英, 설탕세 효과 별볼일 없어

17 | 반짝 아이디어로 명소가 된 편의점

18~19 | 교양 상식: 다시 생각나는 미국 총기 사고

20 | 식품취급 자격증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반짝 아이디어로 명소가 된 편의점

22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3 | Directory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한 협동조합 특감이 한달 하고도 보름을 지나고 있는데도 전혀 그림조차 그리기 어려운 처지다. 조합 내부감사위원 2명과 특감 위원장 1인 등 3인으로 구성돼 일주일에도 여러차례 사무실에 나와 매달리고 있지만 실제적 진실은 차치하고 서류검토 작업부터 만만찮은 작업이다.

8월 21일(화) 조합 운영이사회 월례회의 자리에서 방성덕 특감위원장은 중간 보고를 하면서 “어렵사리 확보한 자료들이 같은 사안임에도 전부 달라 어느 자료를 기준삼아야 할 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런 서류 검토의 난항속에서도 몇가지 주목을 끄는 석연찮은 것들이 지적됐다.

우선 모바일 위탁경영권을 회수하면서 재고 물량에 대한 75만 달러가 지급됐지만 자산 처리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몇천 달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설마 수상한 처리야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정리를 아무렇게나 해놓았다 하더라도 불성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지적이다.

조합 운영위, 협회 지구협회의 연일 특감 조명

조합 특감, 고구마 줄거리 캐나...



운영이사회 보고 내용은 바로 다음날인 22일(수) 개최된 실행 지구협회장 회의에서도 신재균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간접 전달됐다. 신회장은 공식적인 보고 자료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감추기 위해 결산 항목 여기저기로 분산하는 수법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회계처리 꼼수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5/2016 회계연도 운영이사회 활동비가 예산에는 5만 달러 계상되어 있고 실제 지출은



◀ 지난 8월 22일 금년들어 두번째 열린 지구협회장 회의에서 특감 중간 보고 내용을 신재균 회장이 지구협회장들에게 전하고 있다. (원안 사진은 워터루 지구협 최상경 신임 회장)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3,500달러가 초과 집행됐지만 결산 보고서에는 46,000 여달러로 나와 있는 사례를 꼽았다.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일부를 타 항목 결산에 옮겨 분산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비 지출의 많은 사례들이 지출결의서 자료 합산 금액과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general ledger) 금액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불철저하게 관리된 서류들이지만 이를 분석한 것만으로 남용 혹은 방만한 집행 사례가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헬쓰클럽 이용, 주차장 정기권 구입, 회사 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한 한국방문, 할인 매장 포인트 적립 리베이트 챙기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회사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였다.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수년간 매년 수십만 달러의 흑자 기록을 보고했는데 실상에 접근해보면 흑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날 운영이사회에서 언급했던 이번 회계연도 흑자 65만 달러는 비록 예상치이지만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사실 이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지만 낮춰 잡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중간 보고에 불과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조합의 지난 과거의 회계관리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감에서 요구하는 자료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더디며 때로는

영똥한 자료가 제출되는 등 많은 혼란이 이어지며 시간 손실이 크다는 것이 특감위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특감측은 운영이사회 보고에서 “이제 대충의 서류검토만 마무리되어가는 수준이며 캐도 캐도 의혹이 계속 나타난다.”면서 “행정 처리 미비 수준 인지 비리인지 판별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당초 2주 목표 기한이 한달 보름을 넘기고 있고 끝을 보려면 또 한달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8월 21일 조합 운영이사회에서 방성덕 특감위원장이 특감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Internet & Phonenumber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이날 지구협회장 회의에는 동포 언론 한국일보 기자도 취재를 위해 자리를 같이 했다. 한편, 특감 보고에 앞서 신 회장은 협회와 조합의 주요 행사와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우선 적자예산까지 짜며 5만달러를 기부한 무궁화 요양원 인수가 지지부진해 일단 돈을 돌려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대응책에 대해 협회측에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돈만 묵히고 있어 일단 되찾아와야 하겠다는 것이다.(신 회장의 이 발언이 있는 이틀 후의 한국일보는 회장 발언 인용과 함께 무궁화 요양원 기부액과 관련된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으며 특감 중간 보고 내용의 핵심도 기사화됐다.)

이밖에 신 회장이 지구협회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다.

●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타와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경제 포럼에 협회가 참가한다. 실업인협회 전국 총연합회인 UKCIA 차원에서 참석하는 행사이지만 주도권은 OKBA가 가질 것으로 보인다. 포럼과 별도로 UKCIA 연차 총회도 겹쳐서 열리는데 총련 회장은 OKBA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개정 정관에 의거해 신재균 회장이 공식적으로 연합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 푸드핸들러 시험은 타 지자체와 접촉해 한글 번역본 작업을 허락받아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토록 한다. 현재 토론토시가 그간 협회에 위탁 시행해왔던 한국어 시험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 북부번영회에서만 한국어 시험 대행 기관으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처럼 협회가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 모국 인천 광역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 17차 한상(韓商)대회에 신 회장이 참석한다. 출장 비용의 상당액은 UKCIA 공금으로 지원받아 협회 출장비 지출은 최소화한다.

● 조합 운영이사회에서 특감 보고가 길어져 다루지 못한 웨스트몰 건물 협회 인수건은 9월 운영이사회를 조기 개최해 매듭짓는다. 협회가 제 3의 장소에서 모바일 대체 건물을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조합 소유의 현 웨스트몰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결정됐다.(지난 6월 5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압도적 찬성을 얻었음. 26명 투표에 23명 찬성.) 이 결의에 의해 매입 의사를 조합에 전했으며 조합 운영이사회에서 찬성하면 조합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지구협회장들만의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의사 교환과 효과적인 정보 전달 채널을 구축토록 한다.

이상이 올해 두번째로 열린 지구협회장 회의였다. 20명의 회장 중 16명이 출석했으며 2시에 시작한 회의는 4시 경에 종료됐다. 한편, 회의가 열린 22일은 협동조합 고객감사주간 행사(8월 20일 ~ 8월 24일)일 중에서도 당과류에 대한 파격 세일이 있었던 날이라 회의 전후로 지구협회장들은 쇼핑을 하느라 분주했다. 본 회의 시작에 앞서 신재균 회장은 오랜 세월 봉사해온 위터루 지구협 권순천 회장 후임으로 지난 8월 7일 선출된 신임 최상경 회장을 소개했다. ■



**KBA 협동조합
고객감사주간 행사 성료**

▲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계속된 협동조합 고객감사주간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협회가 발굴한 신규사업인 커피사업 제휴사 세인트지미 커피(Saint Jimmy Coffee)와 샌드위치 사업 제휴사 에이비즈(A Bis Gourmet)도 키오스크를 차리고 판촉 및 상담을 했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

* 형법 * 가정법 *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세권, 세입자 분쟁 * 주류 판매법
* 복권 판매법 * 담배 판매법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신용카드 결제 사기 유의

빠른 손놀림에 강제입력 기능으로 업주 피해

최근 노스욕의 한 회원이 데빗 머신과 관련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기를 두차례나 당하고 똑같은 피해가 다른 회원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달라고 당부해왔다. 사연인 즉 동양계의 한 손님이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를 자신이 다 부담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친 피해는 대략 200달러 전후의 액수였다.

당하고 난 뒤에 상황을 되짚어 본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 시 빠른 손놀림으로 머신마다 부여된 비밀 번호와 force transaction(강제 입력)기능을 누르고 쇼핑금액, 카드번호등을 입력해서 결국 손님의 카드 외상값을 업소 주인이 뒤집어 쓰게 되는 과정이다.

데빗머신도 종류가 다양하며 수동의 입력 방식은 force transaction 혹은 manual entry기능이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훔는 방식(swipe)이든 칩방식이든(insert) 최근 유행하는 갖다대는(tap, wave)방식이든 단말기와 접촉후 영수증에 approved라고 나온다. 이 경우에 주인은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카드가지고 사기치는 자들은 결제 시 잠시 눈을 피해주는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손동작으로 카드를 훔는 것처럼 시늉



만 해놓고 강제기능을 누르고 여타 정보들을 순식간에 입력하고 OK 키로 마무리하면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주인은 사기꾼이 쇼핑한 금액만큼 고스란히 카드회사에 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전문용어로 차지백(chargeback)이라고 하는데 카드발급사나 카드소지자가 특정 결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지불거절을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즉, 카드 소지자(사기꾼)가 그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카드발급 은행은 이를 근거로 주인에게 일종의 구상권(求償權)을 발동하는 것이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기꾼의 쇼핑 결제액 부담이외에도 은행이 이같은 구상권 발동 절차에 대한 수수료까지 물리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100달러 수준이라고 하니 피해가 이중이다.

<11면에 계속>



고객이 원하는 고급 맞춤형 서비스

- POS(Debit) 수수료
 - Chip/Swipe : 3.65 cents / transaction
 - Taps : 5.65 cents / transaction
 - Rental Fee : \$30 / month
- CREDIT CARD
 - Visa, Master Card 수수료 1.55%
- NO STATEMENT FEE (무료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SIGNING BONUS : \$300
- NO CONTRACT
- DEBIT MACHINE 문제발생시
 - 한국어 문의(월-금) 9:00 AM ~ 5:00 PM(Tel.905-560-4511)
 - HELP DESK 운영 24/7 365 Days (Tel.1-888-263-1938)
 - 캐나다 전 지역 4-6 시간내 방문 교체(365 서비스)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Tel 1.888.554.7355 /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세인트지미 커피사업 계약 조건 개선



계약 옵션/가격 일원화에 대금정산 간편

세인트지미 커피 사업과 관련해 몇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회원들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첫째, 계약 옵션의 통일화이다.

당초 2가지 선택이 있었다. 판매량만 가지고 잔 당 50센트 위탁 판
매 수수료를 책기는 방식과 하루 10달러 리스 요금을 지불하고 잔
당 약 1달러의 이익을 책기는 방식이었다. 이 두가지 옵션 중 자신의
업소 형편을 살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시행에
들어가보니 두번째 방식을 택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옵션이 의미를
거두지 못해 첫번째 방식, 즉 판매된 한 잔 당 무조건 55센트를 받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이는 종전 옵션 시 50센트였던 것이 5센트가
오른 55센트라는 점에서도 회원에게는 유리해진 것이다. 앞으로 하
루 10달러 리스료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방식은 없어지고 판매 물량
에 따른 잔 당 55센트 제공 방식만 남는다.

둘째, 판매 가격의 통일화이다.

종전에는 커피 종류에 따라 소매 가격이 \$1.59 ~ \$1.99로 나뉘었
지만 수정된 계약하에서는 세금 포함해 모든 종류의 커피가 잔 당
\$1.59로 통일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수입 관세로 인한 원료
공급가가 20~20% 인상되기 때문에 커피 체인점들의 커피 가격 인
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제휴사 세인트지미 측은 오히려 가격을 낮춰
통일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매업소 판매 관리의 편리성
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대금 정산의 간소화이다.

당초 회사측의 판매 대금 정산은 앞의 옵션 선택 방식과 가격 이원
화 등이 엮이면서 복잡했으나 계약 옵션과 판매 가격의 통일화로 인
해 정산도 훨씬 간편해져 회사측과 업소 사이의 분쟁 소지가 없게
됐다. 회사측은 업소를 월 1회 방문해 재고 조사 후 총 판매 물량을
계산하고 주인 몫 잔 당 55센트의 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원 비
즈니스 계좌에서 회사로 이체시킨다. 계산도 편하며 회원 입장에서
도 판매 물량과 판매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 사진은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 업소에 차려진 세인트지미 커피 키오스
크이다. 지난 8월 3일 오픈하던 날 그랜드오픈 행사도 가졌다.

협회 문의
(416)789-7891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Pepperoni Stick 45g 2 for \$4
Reg. \$2.49/each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7월~8월
스페셜

Buffalo Wing 2 for \$2
Chicken Stick 25g Reg. \$1.19/each

1390 Hopkins St., Whitby (905) 666-9395

세인트지미

그랜드 오픈 행사

이모저모

한편, 새로이 발굴해 회원들의 수익 창출에 짝꿍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커피사업은 회사측이 가입 회원 일부 업체의 첫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벌여 관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세인트지미 로고 마스크트로 분장한 관측 요원이 업소 밖의 사람들 시선을 끌만한 위치에서 사인보드를 흔들며 고객 행위를 하는가 하면 업소 내에 차려진 키오스크에 관측 도우미들이 방문 손님들에게 커피를 무료 시음시킨다. 현재 가입 회원 10여 업체가 행사를 치렀으며 대표적으로 휴로니아 지구협회 박미숙 회원이 운영하는 'West River Convenience'에서 치른 행사 장면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행사는 지난 8월 15일에 있었다. ■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당 100달러 정도의 경감으로 기대치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전혀 감흥이 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 부회장 겸 대외홍보담당 총책 칼 리틀러씨는 “전체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진전의 정도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측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향후 어느정도가 될지를 예측해볼 수 있는 변화적인 조치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연맹 역시 RCA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캐나다가 현저히 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불만으로 지적하면서도 일단 정책 방향성에서 좋게 봐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일정 부분 이 분야에서 카드 회사를 어느정도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전국레스토랑협회 새나 먼로 회장은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며 3만 여 회원의 80%가 높은 카드 수수료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회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문제로 부심해왔으며 앞으로 부담을 더 낮추는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업주들은 정부 발표를 일단 크게 반겼다. 전국편의점협회(CCSA) 새틴더 체라 회장은 “정부 발표가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자영업주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장관 발표 자리에는 퀘벡편의점협회(QCSA) 미셸 가드보아 회장도 배석했다. 체라 회장은 “소자영업연대(SBMC; Small Business Matters Coalition)의 모든 성원들과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수수료 인하에 책임성을 다하도록 신뢰와 검증을 구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SBMC는 지난 2014년 전국편의점협회, 전국독립식품점 연맹(CFIG) 등 25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협회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이며 약 97,000여 소자영업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결성 동기는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소자영업주들이 현재 당면해 있는 어려운 처지에 주목하지 않는 처사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다. 산발적이고 흩어져 있는 소자영업 단체들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면 캐나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자영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이날의 정부 발표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2014년 카드회사의 자발적 협약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협약은 소자영업주의 희생하에 이보다 더 큰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수수료율 구조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

편의점 업계 환영, RCC 기대이하로 실망

카드 수수료 인하 ‘새발의 피’?



비자, 마스터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취할 것을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 지난 8월 9일 연방정부는 앞의 두 회사와 아멕스(American Express) 사가 소위 “기본 포인트 10”(10 basis points)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자발적으로 수수료 인하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의 의미는 0.1%를 가리킨다. 오타와의 한 식품점 현장 방문 자리에서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 협약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해 중소 상인들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 중 2억 5,000천만 달러가 덜어질 것이라고 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두 회사는 오는 2020년부터 시작해 평균 수수료율을 1.5%에서 1.4%로 하향조정할 것이며 최고율과 최저율의 차이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 아멕스는 특정 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언급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영업계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줄이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하는 반응도 있다. 전국소매업협회(RCC; Retail Council of Canada)는 대변인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래액 10만 달러



▲ 지난 8월 9일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이 오타와 소재 식료품점 팜보이(Farm Boy)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책을 발표했다. 맨 왼쪽은 매리 응(Mary Ng)소상공부 장관이다.

이제 제 3자의 수수료를 합리화 검증의 실현이 정부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체라 회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수수료율의 과격적 인하인데 정부 정책이 다국적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소자영업 비즈니스에 가시적 영향을 느낄만큼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는지 지켜볼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 실현을 세심 강조했다. 그러나 편의점 업체라고 다같은 반응은 아니다. 규모가 큰 체인 편의점이야 회사 전체의 매출 실적으로 잡히면서 절약액이 크겠지만 독립편의점의 경우 개별 업소별 매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액 10만 달러 당 100달러 절약폭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7면에 이어> 신용카드 결제 사기 유의

피해 실태 설명은 이쯤하고 사전 예방책을 알아본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머신 고유 비밀번호 설정이다. 보통 제조사에서 카드결제기를 생산 출시할 때 초기설정 비밀번호 (default password)가 부여된다. 그러면 이를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에서 업소에 기기 공급시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해준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간혹 서비스 회사 실수로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이 이를 회사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는 수동 입력기능(force transaction, manual entry)을 봉쇄(block)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회사에 부탁하면 된다.

사기꾼이 아무리 빠른 손놀림을 하더라도 강제 입력 기능 자체가 막혀 있으면 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앞의 머신 비밀번호가 사기꾼에게 노출돼 있다면 봉쇄된 강제 입력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머신 비밀번호의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하나의 요령은 손님이 카드 결제할 때 10초가 넘어가도록 꼼지락거리면 수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 중단을 시킨다. 불과 몇초에 이뤄질 과정이 시간을 끌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 전화선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래봐야 10초 전후인데 이 경우 20초를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완곡히 사용중단을 시켜야 한다. ■

온라인 건강식품 도매



Natural Products Distributor

DAVIDWHOLESALE.COM

신규 취급점 / 판매점 모집

토론토 내 배달 가능 1 Case (473ml X 12 bottles)

{ 5가지 맛 } Blood Orange / Grapefruit Sage / Guava Mango
Raspberry Pome / Yuzu Lemon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 콤부차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마시는 건강다이어트 유산균음료”



Bucha Drink
473ml

소비자가 \$3.99

도매가 \$2.33

*도매등록시 승인을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승인 시간 후 구입가능합니다.

Natural Products Distributor
DavidWholesale.com

그랜드
오픈

Special Gift
\$50

When ordering online, apply the coupon code:

*쿠폰코드(온라인에서 사용) : DHR2018NEW

Registration Bonus

Sign up and get \$50 off for your first purchase.
You can redeem only one coupon at a time of purchase.
* No cash value.

*오메가, 아사이, 각종 비타민 다양한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바로 **도매로 구매 / 50불 특별할인도 바로 받으세요!**

NOT OPEN TO THE PUBLIC www.davidwholesale.com
Orders under \$200 before taxes and discounts are charged for shipping.

문의 : 416.419.3751



데이빗홀세일닷컴

쿠쉬타르도 서클케이 통해 학교 재정 후원 공립학교 돕는 편의점



▲케백을 제외하고 북미주는 물론 전세계 체인망 간판을 서클케이로 교체 중인 쿠쉬타르 알리망타시옹이 북미주 공립학교 재정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약 360여 개 지점을 통해 ‘우리학교 돕기’(Fueling Our Schools)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방법은 휘발유 주유 펌프 중 특정한 펌프 - 예를 들어 4번 주유기 - 에서 판매된 휘발유 1 갤런 당 1센트를 별도로 적립해 재정이 어려운 학교에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년 말까지 총 7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글로벌 연료사업 담당 부사장 제프 버렐씨는 “서클케이는 우리가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힘껏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 창의적인 학교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커스(Parker's)

개학 시즌이 돌아오며 미국 공립학교(대학 제외)에 대한 체인 편의점 사들의 학교 재정 후원 활동이 주목을 끌고 있다. 캐나다는 공립학교 재정자립도와 예산 지원이 미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미국 공립학교는 부익부빈익빈이 아주 심하고 열악한 공립학교의 형편은 처참할 정도다. 연방이 예산을 줄이면 주정부에서라도 차이를 줄일 예산 증대가 있어야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변변치 않으며 빚에 허덕여 공교육 예산을 늘일 여건이 아니다.

미 연방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공립학교 선생들의 94%가 소소한 문방용품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유인물 등 선생들 스스로가 준비한 보조 교육 자료를 학교측의 아무런 보상없이 자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미국의 공교육 재정이 쪼들린다는 증거다. 캐나다는 이런 보조 교유자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선생 당 수백달러씩 예산이 편성돼 자비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여하튼 이런 열악한 형편에서 미국내 우수 체인 편의점 회사들이 공립학교 재정 지원에 나서 착한 기업 이미지도 구축하고 실제로 학교와 선생과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전미편의점협회 기관지 NACS 최근호를 보니 미국내 서클케이(Circle K)체인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서클케이 체인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캐나다 편의점 지존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사도 공립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실태를 간단히 살펴본다.

■ 서클 케이(Circle K)



1976년에 조지아주 미드웨이에서 1호점을 오픈한 이후 빠른 기세로 사세를 확장해온 편의점 체인사 파커스(Parker's)는 본사가 조지아주 사바나(Savannah)에 있다. 2011년부터 지점 소재지 공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돕기’(Fueling the Community) 사업의 일환이다. 캠페인 시작부터 현재까지 거의 1백만 달러 가까운 돈을 학교에 희사했고 올해도 일부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1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창립자이자 현재도 회장 겸 CEO인 그레그 파커(Greg Parker)씨

는 “교육기관과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의무이자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기부금 마련 방식은 위의 서클케이하고 유사하다. 다만 날짜를 정하는 것이 다르다. 매월 첫째 수요일날에 주유소에서 판매된 금액의 일정몫을 따로 떼어 학교에 지원한다.

■ 큐마트(QMart)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편의점 체인사 큐마트는 체인점이 하나 새로 오픈할 때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그랜드 오픈행사의 하나

로 해당 체인점 소속 커뮤니티의 한 학교에 1,000달러를 기부한다. 올해 5개 체인이 신규 오픈해 총 5,000달러를 기부했다. 회장 파질 말리크씨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같은 참여는 서로간의 유대감을 각별히 강화시키는 의미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이상 대표적인 편의점 체인사들의 지역사회 및 학교 기부금 제공 실태를 스케치했는데 독립 편의점도 나름의 형편에 맞게 지역 학교 행사에 상품이든 현금이든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OKBA 주요 행사 (9월 ~ 12월)



- 9월 : 협회 예,결산 정기이사회 (날짜 추후 공지)
- 10월 : 협회 정기총회 (날짜 추후 공지)
- 11월 : 협회 1차 정기이사회 (정.부회장 선출)

- NACS Trade Show : 10/7 ~10/10 라스베가스
- 한상(韓商) 대회 : 10/23 ~10/25 모국 인천 송도

2018 한인 동포의 날

청년이 여는 미래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www.kcwa.net

일시 2018년 9월 22일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30분
(Doors Open: 9:30am)

장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노스옥
(540 Finch Ave. W, Toronto)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 416-340-0838
myoungsuk.joo@kcwa.net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를 지참부탁드립니다.

① 진학정보 세미나 및 멘토십 의대 / 의료분야 10:00 - 11:30 치대 / 약대 1:00 - 2:30	② Keynote 집단문화와 나 (Embracing My Uniqueness in a Collective Culture) 11:30-12:30	③ 문화공연 소래양상블 (현악삼중주) 11:20 - 11:30 Mirage (프로젝트 밴드) 12:30 - 1:00	④ 상담서비스 자녀양육 청소년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 10:00 - 2:30 * 상담예약 필수	⑤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부스 Griffin Centre (청소년 상담기관) 대학별 학생회 및 단체 10:00-2:30
---	--	---	--	--

후원

미디어업찬



쿠쉬타르도 서클케어로 이미 진출해

유럽 편의점 강국 폴란드 엿보기

금년 들어 지구촌 편의점 소식에서 폴란드가 부쩍 주목을 받고 있다. 전미편의점협회(NACS)기관지를 비롯해 업계 전문지들이 유럽 편의점 소식을 전하면서 자주 폴란드 현황에 조명을 비추는데 근착 NACS가 특집 지면을 폴란드 소식으로 완전 도배를 할 정도다. 지금 그곳 편의점 업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처럼 관심을 모으는지 들여다 보자.

폴란드 경제가 건설하고도 중단없는 성장세를 구가 중이다. 이는 내수 시장이 받쳐주고 무관세로 유럽연합(EU)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면서도 고숙련된 풍부한 노동인력까지 가세해 경제 전반이 매우 양호한 상태다. 미 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폴란드 현황이며 한 명망있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은 수도 바르샤바가 폴란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경쟁력있는 소매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바르샤바는 아주 다양한 시장들이 공존하고 넘쳐난다. 쇼핑센터, 초대형 수퍼마켓, 일반 수퍼, 노천 시장, 플라자, 아웃렛 몰, 시골 재래식 시장, 백화점, 주거 혹은 오피스 건물 로비의 소매업소 등등... 여기에 바르샤바 주민들의 외식 소비액은 전국 평균의 2.5배 이상이다. 이제 편의점 유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트렌드 투어를 나서보자.

Zabka

자브카(Zabka)는 20년 전인 1998년 폴란드 중서부에 위치한 문화, 상업



도시 포즈난(Poznan)에서 단 1개의 편의점으로 출발해 이제 국내 4,500여 개의 거대한 편의점 체인회사로 성장해 있다. 전국망이다. 체코에도 진출해 있다. 편의점에 델리 품이 가미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4,500여 개 중 3,000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자브카는 또 산하에 규모가 더 큰 수퍼마켓 'Fresh Market'도 200개 이상 거느리고 있으며 공급 체인망과 배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물류창고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식사에 가까운 간식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이 간이 식사 소비 인구의 73%를 자브카가 상대하고 있다. 이때 가장 인기있는 메뉴가 샌드위치다. 두번째 인기 제품은 자사 상표부착(PB)인 그린고(Green Go) 샐러드다. 신선도때문에 많은 애호를 받고 있다. 이 방대한 전국 네트워크 소매체인은 부가 서비스도 다양하다. 각종 공과금도 내고 선불 전화카드와 대중교통 카드 충전, 스포츠 복권 구입, 폴란드포스트(Poczta Polska * 캐나다포스트같은 것)와 DHL 소포수령 등 다양한 실 생활 서비스를 누리는 거점이기도 하다.

1 Minute

프랑스 미디어 그룹 라가르데(Lagardere) 산하 유통사업 회사 라가르데 트레블 리테일(Lagardere Travel Retail)이 운영하는 70여 개 편의점 직영 체인이다.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에만 소재하며 출퇴근자나 유동 인구가 집중된 핵심 지역에 전략적으로 포진해 있다. 도심지, 공항, 역에서



▲ 바르샤바 프레데릭 쇼핑 국제공항 청사 내에 자리하고 있는 '1 Minute' 전경

쉽게 발견된다. 아주 다양한 그리고 품질 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취급하는데 식음료, 술, 그리고 빵을 비롯한 기초 먹거리 생필품에 더해 신문, 잡지, 담배, 복권, 신선한 낙농제품, 간단한 요리 메뉴를 취급한다.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직장인, 여행객이 붐비는 곳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필수품을 다 판매하고 있다. 선불카드 충전, 각종 공과금 납부 등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참고로 라가르테 그룹은 19세 중엽에 파리에서 시작된 비즈니스로 산하의 트레블 리테일은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에 약 270여개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회사가 폴란드 핵심 지역을 염두에 1 Minute라는 간판으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이다.

Delikatesy Centrum

종합상사인 유로캐쉬 그룹(Eurocash Group)이 지난 1999년에 설립한 편의점 체인으로 1,340개 업소를 거느리고 있다. 한 점주가 여러개를 운영하며 가맹 점주는 500여 명이다. 본사는 바르샤바에 있으며 제품 균질화와 쇼핑 체험의 통일성에 역점을 두고 과학적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돋보인다. 폴란드 남부 쪽에서 인수 합병 방식으로 사세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중이며 중부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제품 신선도 특히 과일, 야채, 육류, 채소 등 식료품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편의점보다는 식품점에 더 가까운 편의점이다. 델리카르타(Delikarta)라는 고객충성프로그램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는데 소비자 개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때문에 무척 인기를 모은다고 한다. 적립된 포인트를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델리카테시의 모회사인 유로캐쉬를 간단히 살펴보자. 원래 포르투갈 무역회사인 제로니모 마틴스리는 회사가 폴란드 시장 진출을 계기로 사세를 키운 것인데 처음에는 케쉬엔캐리 체인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중간 부침을 거듭하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00년 중반부터는 폴란드 시장 특성이 동네 구멍가게 스타일에 친숙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규모 식품점, 편의점쪽으로 방향을 잡고 성공의 계기를 마련했다.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부터는 산하 여러개의 자회사들이 날개를 단듯이 기세좋게 뻗어나가고 있다. 델리카테시 센터럼도 그런 성공작의 하나다.

Circle K



▲ 바르샤바에 있는 한 서클케이 업소 내부.

모회사는 잘 알다시피 캐나다 편의점 지존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 그룹이다.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주유소병설 편의점 그룹 스타토일(Statoil)을

인수하며 당시 폴란드에 깔려있던 스타토일의 체인망이 쿠쉬 타르에 넘어온 것인데 브랜드 통일화를 위해 북미주와 동일하게 2015년에 서클케이로 개명한 것이다. 서클케이 폴란드는 주유 할인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트래픽을 증대함과 동시에 자사 고유 커피 상품인 심플리그레이트커피(Simply Great Coffee)로 인스토어 트래픽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 식사 대용 푸드서비스까지 가세하는데 핫도그를 비롯한 따뜻한 메뉴들이 취급되고 있다.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 뜨네기 손님들에게까지 각광을 받는 다양한 푸드서비스가 호평을 얻고 있다. 고객 충성프로그램인 서클케이엑스트라클럽(Circle K Extra Club) 또한 트래픽 증대의 효과노릇을 한다.

기타



폴란드에서는 셸(Shell) 주유소 겸 편의점 서비스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420여개 주유소에 3,0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 올렌 그룹(Orlen Group)이 운영하는 주유소 병설 편의점 PKN Orlen 이라는 체인이 1,800여개 가까이 있고 Top Market이라는 슈퍼마켓이 600여개, 최대의 할인 슈퍼마켓 Biedronka 체인점이 3,000여개 정도가 있다.

이상 폴란드 편의점 소매업계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폈는데 경제 붐이 소매유통업 분야, 특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체인의 융성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을 실감할 수 있다. 전체 국력을 볼 때 과하다 할 정도로 체인 편의점 규모는 대단하다. 그 이유는 경제가 활기를 띠자 해외 자본들이 인수 합병으로 투자를 한 후 신규 오픈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가 후퇴할 때에도 이들 편의점 체인사들이 영업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할 지는 두고볼 일이다. ■

조사결과를 보니 이 수치는 1%가 줄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설탕함유 청량음료를 종전처럼 계속 마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치가 시행후 더 늘었다는 사실이다. 시행전인 2월 조사에서는 31%였던 것이 시행 후인 지난 6월 조사에서는 44%가 나왔다.

제도 시행 전에 영국 소비자들 과반수는 정부의 설탕세 도입을 지지했으며 일부 국민들은 제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 시행전 54%가 현행 설탕세를 지지했으며 시행 후 현재 69%는 청량음료만이 아니라 당과류 전부에 대해 설탕세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현행 설탕세는 너무 물러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종전 소비패턴을 특별히 변경해야 할 자극이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설탕세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탕 소비 자체는 여전히 대다수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 중요한 보건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청량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하며 최우선적 해결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은 변함없다.

설탕세는 영국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을 막기 위한다는 주 목적 하에 도입 시행한 것이다. 100ml 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서는 리터 당 18펜스(캐나다화 약 30센트), 100ml 당 8그램 이상 함유된 음료는 24펜스를 부과한다. 그러나 무가당 천연주스, 우유 성분이 많은 음료 등에 대해서는 설탕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탕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학생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아동 클럽 활동에 지원된다.

소비자 소비 행태 변화 미온적

英, 설탕세 효과 별볼일 없어



▲ 아동 비만 퇴치를 주된 목적으로 도입한 영국 설탕세가 별로 약발이 안먹히고 있다.

영국에서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산음료 설탕세(sugar tax)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정부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설탕세와 소비자'(Sugar Tax Shopper)라는 제하의 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62%가 설탕세 도입 이후 자신의 소비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20%의 응답자만이 도입 이후 제품 라벨의 설탕 함유량을 유심히 체크해본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제도 시행일은 4월 6일 이전의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라 신뢰도는 높다. 도입 이전 조사에서는 11%가 설탕함유 청량음료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도입 후

영국 정부가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다. 한 전문가는 당시 이렇게 말했었다. "설탕세가 비만을 막기위한 긍정적 신호이기는 하며 제조업체도 의미있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설탕세 부과는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 부담을 주게 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가격부담을 느껴 청량음료를 덜 마시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시행 후 수개월이 지나 조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적어도 현행 수준의 설탕세로는 소비자들의 청량음료 소비 행태에 유의미한 변화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

편의점으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훌륭한 사례다.

원주민 부부가 운영하는데 남편 이름은 티제이 쉬한(T.J. Sheehan), 아내의 이름은 제시 쉬한(Jessie Sheehan)이다. 일반적인 편의점 품목을 취급하면서 특별한 아이템 하나를 추가해 대박을 치고 있는데 그 특별 아이템이라는 것이 아이스크림이다.

2014년에 이들 부부가 인수해서 고색창연한 가게를 한번 들었다 왔다. 대대적 개보수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쓴 것이 수제 아이스크림을 취급하지는 것이었고 인심 후하게 막 퍼주는 영업 전략을 세웠다. 관광지 길목에 있는 가게라서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지나간다. 여름 한철 장사에 의존도가 높아서 매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즌에 집중적으로 올려야 한다. 겨울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하다. 부부는 가게를 인수해서 꼼꼼히 둘러보고 체크한 후 개보수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그렸다.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어야 할 재고물량과 아이템이 무엇인지 집중 연구했다. 이는 주변 동네 손님들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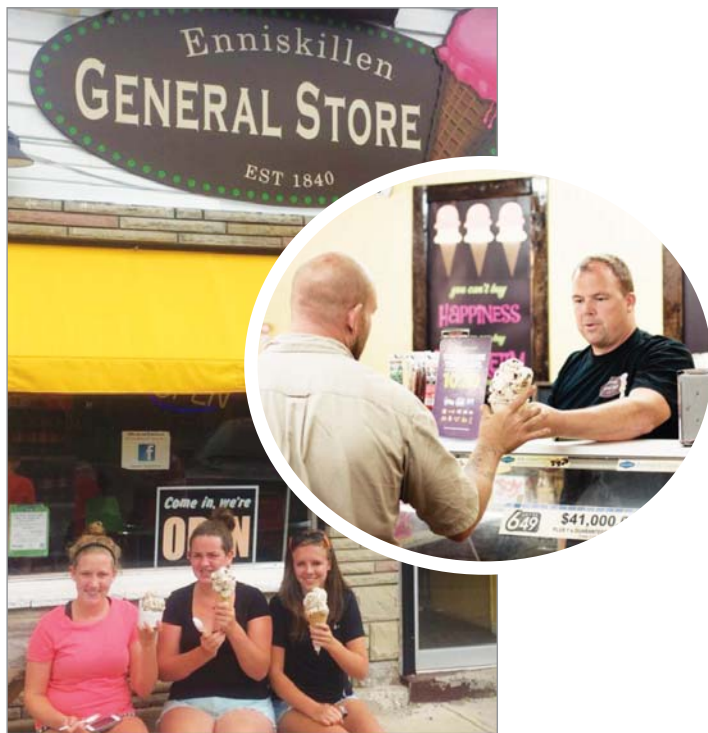
인력 관리, 즉 종업원 고용과 규모의 적정성 문제도 큰 과제다. 겨울에는 한가해서 4명을 교대로 돌리면 되지만 여름이 되면 최대 21명까지 교대로 돌린다고 한다. 해가 다르게 마땅한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이며 특히 불타나게 장사가 되는 여름철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비수기인 겨울철 견디기도 이들 부부에게는 나름의 해결책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촉활동이다. 공급사 직원하고 달을 잘 해서 뭔가 손님들에게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 데이를 비롯한 국경일을 대비한 특별 영업 전략도 있다. 일단 가게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다양한 표지물도 돋보이게 하고 배너도 높이 올려 걸어놓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와플 콘에 메이플 모양의 스프링클이 가득 뿌려진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 종업원 복장도 축제 분위기에 걸맞은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힌다. 만약 때마침 메이플리프스 하키 플레이오프 기간이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jerseys)을 입고 손님을 맞이한다.



버터 타트 축제(Butter Tart Festival)라는 것도 언급해야 하겠다. 이 행사는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원래는 기금모으기 파이 바자 행사(bake sale)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올 것 같지가 않아 아예 파이를 비롯한 여타 구어낸 먹거리들을 함께 해서 먹자 파티를 열어보자는 생각이 들었 (20면에 계속)

막 퍼주는 아이스크림 인심에 주변까지 떠들석 반짝 아이디어로 명소가 된 편의점



온타리오 오사와 북쪽에 '에니스킬렌 제너럴스토어'(Enniskillen General Store)라는 편의점이 있다. 첫 오픈은 1840년 동네 우체국으로 시작했고 이후 잡화상(General Store)이 됐으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만물상회'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가게가 최근 수년에 걸쳐 평범하지 않은 편의점으로 거듭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하나가 비범한



급증하는 학교 총기사고 참극에 마침내 아이들이 나서 개인 총기소유 금지를 요구하며 NRA비판 시위를 벌이게 됐다.

작년 11월 실협뉴스 737호 교양상식에서 “괴물이 된 NRA”라는 제하에 미국 총기사고의 비극과 실태를 상세히 살폈다. 그리고 미국사회가 그토록 참담한 총기 사고 인명피해를 끊임없이 겪는 두가지 이유로 NRA(전미총기협회)라는 조직 그리고 미국민에게 만연돼있는 집단 공포감을 들었다. 총기로 인한 참극에 대해 총기 휴대나 소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현상은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캐나다도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해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다.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에서 기관총 난사로 인한 6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교양상식은 1주기가 다가오는 당시의 비극을 새삼 되살리며 개인의 총기 소유와 관련한 법리 논쟁을 살펴 봄으로써 사태를 한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한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라스베가스 참사는 그때만 모두 심각한 척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금년 들어서는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억에 남을 끔찍한 사건은 지난 2월에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에 난사당해 17명의 학생이 사망한 참사였다. 뉴욕타임즈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총기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는 미국 학교에서 총성이 울리는 일이 드물고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 됐다”고 개탄했다.

드디어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중·고생에 초·등학생들까지 가세해 3월 중순부터 여기 저기 시위가 벌어지더니 마침내 3월 24일에는 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800여 도시와 마을에서 시차를 두고 시위가 열린 것이다. 구호들도 다양했는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다가가는 정곡을 찌르는 요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했다. “NO more NRA”, “No more guns” 앞의 것은 괴물이 된 NRA를 비난하는 것이며 뒤의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총기소유를 허락하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본질에 다가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 특히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아닌 체스처만 쓸 뿐이다. 이해관계와 사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그런면에서 감정에만 충실하니 실제적 진실에 훨씬 가까이 접근하는 용기가 발휘된다.

아이들이 부르짖은 저 두가지 슬로건을 깊이 새기며 뉴욕타임즈 지난 3월 27일자 오피니언 코너에 게재된 투고문 한편을 읽어보자. 길지 않아 완역을 했다. 글쓴이는 은퇴한 미연방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씨다.

다시 생각하는 미국 총기 사고

The New York Times

John Paul Stevens : Repeal the Second Amendment 수정헌법 2조를 폐하라!

『내 평생 이 나라 수도 워싱턴 D.C와 여타 주요 도시에서 지난 토요일처럼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위가 벌어진 모습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이 시위들을 우리는 정중히 주목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총기로 인한 학생 집단 살해 참극이 벌어지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차원의 지지 시위다.

이 대중적 시위는 이 나라 입법가들이 반자동 소총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총기 구입 최저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고 무기 구매자 모두의 신상에 관한 더 광범위한 정보 관리 체제를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명백한 신호이다. 그런데 시위자들은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다름아닌 수정헌법 2조의 폐기(repeal of the Second Amendment)가 그것이다.

국가의 상비군(常備軍)이 각 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 규정이 채택된 것이다. 수정헌법 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잘 규율화된 민병대(well regulated 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따라서 인민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오늘날 이 우려는 18 세기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저 규정을 채택하고 200년이 더 흘렀다. 그 세월 동안 저 조항은 총기를 관리 통제하는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법제화 권한에 여하한 제약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한결같이 이해되어 왔다. 1939년 대 법원은 전원일치로 “의회는 총신을 짧게한 산탄총(sawed-off shotgun)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총기가 잘 규율된 민병대의 유지 및 효율적 운영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총열의 길이가 18인치 미만인 총기류 소지를 규제한다고 민병대 유지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

워렌 버거가 대법원장이던 시절인 1969년부터 1986년까지 내 기억으로는 연방 판사든 주 판사든 그 어느 판사도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미총기협회(NRA)와 같은 단체들이 저 규정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를 하며 무기에 대한 연방의 통제는 수정헌법 2조가 부여한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워렌 버거 대법원은 NRA를 가리켜 가장 거대한 사기를 저지르는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판했었다. 나는 그가 표현한 ‘사기’(fraud)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이 사기는 내 평생 이런 저런 특별한 목적의 이익 집단들이 대중을 상대로 저지른 최고의 사기 중 하나다.

그런데 2008년에 대법원은 워렌 버거 대법원과 다른 판사들이 오랜 세월 굳게 이해해 온 수정헌법 2 조의 제한적 적용이라는 전통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 소위 ‘미연방정부 대 헬러 사건’(District of Columbia v. Heller)을 통해서 “개인의 무기 소

지권에 제한을 가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나는 이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판사 4인 중 한명이었다.

그 판결은 지금도 나의 신념이지만 잘못된 것이며 명백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그 판결로 인해 NRA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선동전의 무기를 거머쥐게 됐다. 수정헌법 2조를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저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작업은 간단하며 그로써 NRA가 의회에서 논의나 총기 소지 제한을 가하려는 건설적인 입법화 작업을 방해하는 로비력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방법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낫다.

지금 말한 이 쉽고도 극적인 조치야말로 지난 토요일 시위자들이 추구하려는 목표에 그 어떤 가능한 개혁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것만이 지구상의 어떤 마켓에서도 볼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무기 시장에서의 무기 상인만 보호하는 법 체계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해야만 2008년 이후의 그 어떤 때보다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며 최근의 일련의 총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말로 많은 수의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전직 연방 대법관의 애절한 절규다. 결론은 간단하다.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의 헌법적 근거와 역사적 연원은 구시대적 유품이니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하지는 주장이다.

1775년 4월 19일,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군을 맞아 식민지 미국의 민병대(militia)가 머스켓과 라이플 총으로 무장하고 교전을 시작하며 미국 독립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영국은 정규군이었으나 미국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시민들이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영국군과 8년간의 긴 전쟁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철철 넘치는 애국심때문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은 라이플(rifle)이라는 신식총 덕분이었다.

나선(螺旋)이 있는 라이플은 유효 사거리가 2배 이상 더 나갔고 또한 명중률이 매우 높았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돌격해오는 영국군을 숨어서 저격하기 매우 유리한 무기였다. 사실 모든 민병대들이 라이플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로 사냥꾼들이 이 총으로 무장해서 저격에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애국심과 라이플이라는 신식무기로 승리를 거둔 식민지 백성들은 마침내 13개 주가 연합해서 하나의 헌법 아래에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헌법 제정 4년 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새롭게 수정 헌법 2조라는 것이 추가됐다. 조항 원문은 이렇다.

Second Amendment :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따라서 인민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230여 년 전인 1791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두가지 근거에서 당시로써는 의미가 있었다.

첫째,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방어권 확보였다. 미국 역사의 태동 자체가 그렇듯이 국가 권력의 전횡을 피해 이주한 후에들인지라 행여 연방정부가 권력이 비대해져 각 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대권력을 행사할까 우려가 깊었다. 그래서 비록 독립 국가를 건립했으나 각 주(州 state)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정부의 무장권 보장을 헌법으로 명기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주 차원에서 민병대가 결국 무장할 수밖에 없었으니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둘째, 공권력이 미치지에는 미국은 땅이 너무 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했다. 안그래도 죄없는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커질대로 커진 땅덩이에 무법자 천지인 서부 개척까지 곁들여 영토는 무한대로 광활했다. 연방이든 주정부든 국가 공권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렸을 때 열심히 봤던 서부 영화를 상기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시민들은 각자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외부의 공격을 스스로 막아내야 할 처지였다.



▲ 학교 총기 사고로 숨은 학생들이 사망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된 지난 5월 5일 NRA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연차총회를 열어 총기 전시회를 가졌다. 한 고등학생이 라이플 신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있다.

자, 오늘날 21세기에 과학이 너무 발달해 걱정을 할 처지가 된 현재 저 두가지 배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공권력이 미국인의 일상적 삶에 구석구석 싹뺏쳐처럼 깔려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단이 차고 넘친다. 911을 치면 경찰은 5분내에 출동한다.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오늘날 저 두가지 사실을 근거로 수정헌법 2조를 들이대며 개인의 총기 소지를 옹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악한 이익추구 이외에 답은 없다.

총기의 성능은 200여년 전에 명시수가 1분에 3발을 쏘던 것이 지금은 1분에 800발이 나간다. 총격전은 전쟁터가 아니라 백화점, 길거리, 나이트 클럽, 극장, 그리고 가정, 마침내 학교로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벌어지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참사가 벌어졌던 작년 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52,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평균 44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 그룹은 12~17세의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청소년들이 항의 시위때 흔들던 손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Am I Next?” 사태가 이렇게 비감한 처지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이없게도 미국의 여론은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는 쪽이다.

금년 3월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를 했다. 수정헌법 2조 폐지,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의 총기 소지 금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 21%, 반대 60%가 나왔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물으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해 아무리 비극적 참사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아동들까지 나서 총기 소지 반대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이더라도 미국 성인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으로 망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017년 라스베가스 사건 이후 미국의 총기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고가 나면 미국의 어른들은 수정헌법 2조 폐기라든가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를 위한 백만 촛불시위를 벌일 생각은 하지 않고 총부터 열심히 사대니 총기 제조사들은 총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흐트란 미소를 짓는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니 어서 더 많이 총기 사고가 벌어지라고 고사를 지낼 것이다. 사악한 무기 제조사들과 국제 무기상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듯이... ■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식품취급 자격증 Food Handler Certificate

지난 실험뉴스 756호에서 식품취급자격증 (foodhandler certificate)에 관한 정보를 소개한 바 있다. 보건예방 및 계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편의점도 일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본부협회가 입수한 지자체의 동 제도에 대한 집행 실태를 확인해보면 편의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격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 곳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칩스와 같은 밀봉된 식품만을 취급하며 샌드위치를 비롯한 간편 푸드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대한 온주 보건당국의 해석은 이렇다.

『푸드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내 공간(premise ; 업소)의 개념은 식사 혹은 이에 준하는 음식이 해당 공간 또는 여타 장소에서 즉각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업소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식당, 즉각 소비가 가능한 따뜻한 요리 등을 비롯해 음식 제공에 손이 가는 요소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있는 편의점 (convenience stores that serve food items that include a component of food handling such as serving hot foods that can be eaten immediately) 등을 의미한다』

이 해석을 쉽게 이해하면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손이 가는 푸드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손이 가는 여하한 푸드서

비스도 없다면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같은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업주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비록 주정부 차원에서는 개정 시행령을 발효하기는 했으나 산하 지자체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대응 속도나 준비 태세가 또한 다양한 상태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건국에 반드시 문의해서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추측컨데 개정 시행령에서 편의점이라는 용어를 꼭꼭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에도 해석을 위와 같이 한 연유는 체인 편의점들이 대부분 간편한 식사 메뉴 - 샌드위치, 샐러드 등 - 를 취급하는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취지와 해석을 대응이 빠른 지자체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OCSA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서 산하 지자체 보건당국 담당직원들에게 시행령 적용과 해석에 관련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이 적용되려면 지자체 정부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 취급의 경우도 지자체마다 현재는 해석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지자체는 포장되어 납품받는 샌드위치로 냉장고에 잘 보관 관리된다면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무조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커피 서비스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손이 가는 별다른 푸드서비스가 전혀 없으면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으나 지자체마다 현재까지는 해석이 달라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해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

〈17면에 이어〉 반짝 아이디어로 명소가 된 편의점

다. 마을에 있는 5개 제과점들과 팀을 이뤘다. 첫해부터 대박이었다. 만든 것은 하나도 안남기고 몽땅 팔아치운 것이다. 이듬해에 8개 제과점이 가세했고 총 3,000개의 타트가 선보였다.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실수였다. 30분이 지나지 않아 3,000개가 모두 팔렸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즉석에서 머리를 짜냈다. 파이는 품절됐지만 아이스크림이라도 못 사먹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하나는 무료로 해서 두개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2년차를 치르고 3년째 되던 해에 버터를 가미한 타트 파이를 12,000개나 준비했다. 이것도 남김없이 다 팔렸다. 그리고 4년 차에는 24,000개를 팔았으며 올해 5년 차에 26개의 제과점이 참가해 총 8만 개의 버터 타트를 팔았다. 이 정도이니 버터 타트 축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불려도 일반 수준의 축제에 견

주어 손색이 전혀 없다. 쉬한 부부의 편의점만 대박이 아니라 주변 제과점을 비롯한 소자영업소들까지 더불어 반짝 특수를 누리며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다. 함께 판촉 활동을 벌이고 마을 축제로까지 격상시켰으니 일개 편의점이 이런 성과치고는 대단하지 않은가! 물론 오늘의 성공이 순탄하고 편하게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 부부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다만 이런 저런 많은 시도 끝에 실패한 것은 교훈삼고 건진 것은 잘 가꾸고 키워나갔다.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는 아이스크림먹기 컨테스트를 통한 기념마련 행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아 실패했다. 돈도 몇푼 모이지 않았다. 이제는 두번다시 안하는 행사다. 쉬한 부부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약 20년 정도 떨어져 있는 포트 페리라는 동네에 2호점을 열었고 조만간 제 2의 성공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937 - 7637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71 - 3539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OKBA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 main banner for 'OKBA와 친구해요!', and a table of member lists. The table includes columns for '지역사망' (Area), '실업뉴스' (Unemployment News), '게시판' (Forum), '실업뉴스PDF 보기' (View PDF), 'KBA협동조합 스페셜' (Special), and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Joint Purchase). Below the table are various partner logos like Frito Lay, Moneris, and Nestle.

지역사망	실업뉴스	게시판	실업뉴스PDF 보기	KBA협동조합 스페셜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Convenience U & CARWACS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Weston Bakeries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Merchant Services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OKBA PROGRAM STORE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Moneris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SOS SAVE OUR STORES	2018.2.25~3.24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컨비니언스의 미래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점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모바일지점 ----- (416) 285-9591
 1 Mobile Drive, Toronto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센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류)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 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8.8.12~2018.9.8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8월 12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ys XL 2/\$6



All Single Serve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